

박근혜정권의 비정규직대책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으로, 밥값, 명절상여금 조차
차별받는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를 차지하는
학교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차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비정규직 확대가 비정규직 대책이라구요?

지난해 12월 말,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9년 만에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주요내용

- 1) 기간제 사용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2) 파견업종 대폭 확대
- 3)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
- 4) 고용해지 기준과 절차 더욱 쉽게 마련

위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핵심으로 담고 있는 그야말로 비정규직 죽이기 정
책을, 대책이라고 우기고 있는 꼴에 불과합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최대 4년으로 확대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 전환!
무기계약 채용!

예산이 언제 끊길지 모르니,
무기계약 제외라구요?

정부는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해당 사업장 모든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즉 식대, 맞춤형 복지, 출장비 등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상여금 차별을 하지 않도록 지
도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
부 때에도(2011년~13년) 매년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최소한 상
여금 80~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학교비정규직은 제외되었습
니다. 급식비 수당조차 전혀 없다가, 노조의 투쟁으로 올해부터 일부 지
역에서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입니다.

밥값차별, 성과금 차별금지

예산이 없어서,
학교비정규직은
제외라구요?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
기계약 전환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시·지속
업무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채용시 무기계약으로 채용한다는 겁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외 대상이라도 상시·지속적 업무는 기관장이 무기계약으로 전

환할 수 있도록 권장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의 25%, 약 4만 명은 기간제입니다. 이 중에서 약 2만 명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간제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주15시간미만의 초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초등돌봄교실 전담사가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일부 교육청은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사의 70% 이상을 무
기계약 전환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일부 직종은 사업이 언제 중단되고, 예산이 언제 끊길
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무기계약 제외 직종으로 구분해서 2년마다 교체 사용하기도 합니
다. 법으로 정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도 무기계약이 아니라고 우기기까지 하며, 8년
이상 근무한 초등스포츠클럽강사는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학교비정규직을 아십니까?

전국 1만 여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90만 명입니다.

교사가 40만 명인데, 또 다른 40만 명은 월급 110여만원을 받는 비정규직입니다. 급식실, 교무실, 행정실, 과학실, 도서관에서 아이들의 밥을 만들고, 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학교비정규직입니다. 교육부에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때마다, 돌봄전담사, 전문상담사, 스포츠강사라는 이름의 새로운 비정규직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죠, 5년 전만 해도, 학교비정규직은 20년을 일하나 1년을 일하나 임금이 똑같았습니다. 일체의 수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을 해서 근속수당도 만들어졌고, 명절상여금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도 **정규직 임금의 57%에 불과합니다.**

정규직은 호봉제로 인해 1년에 평균 8만원의 월급이 인상되지만, 비정규직은 2만원이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마저도 근속 13년까지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절상여금은 100~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성과상여금은 비정규직에겐 아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올해부터 신설된 **급식비 수당조차 정규직의 60%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1년에 2~3개월의 방학기간은 아예 월급이 없습니다. 노동자가 원해서 방학때 쉬는 것도 아닌데, 방학기간 휴업을 하는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여름과 겨울방학, 1~2개월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는 형편에, 방학기간 학교비정규직은 심각한 생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별

기본급	정규직	호봉간격 평균 8만원
	비정규직	근속수당 1년 2만원
정액 급식비	정규직	월 13만원
	비정규직	일부 지역, 8만원
명절 상여금	정규직	기본급의 60%씩, 2회
	비정규직	년 40만원
성과 상여금	정규직	(년 154~295만원)
	비정규직	없음



▲ 급식실



▲ 급식실



▲ 행정실



▲ 스포츠강사



▲ 도서관 사서



▲ 방과후 강사

과학실무사, 교육복지사, 구육성회, 사감, 당직전담사, 배식전담사, 사서, 스포츠강사 시설관리사, 영양사, 조리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전문상담사 전산실무사, 조리실무사, 청소실무사, 초등돌봄강사, 특수교육지도사, 행정실무사 등 50직종